

이재명 “위기 극복 전념” 檢 출석 하루만에 민생행보

민주당 인천시당서 현장 최고위...내부 결집·대안 정당 면모 부각 “야당·민주주의 파괴 시도 의연하게 분쇄”...오늘 신년 기자회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민생 및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내부 결집을 유도하는 등 사법리스크 극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법리스크의 장기화가 불가피, 방탄 프레임 논란에서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의연하게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낚조를 해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성남FC 사건은 죽은 사건을 되살려 정적을 죽이려는 조선 시대 사화 같은 사건”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죽이기는 사화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잔인함, 악랄함, 비열함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했다.

친명 진영 측에서는 어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민심의 흐름이 당내 비명 진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의 위기 상황에서 내부 총질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비명 일부 의원들이 전날 검찰 출석 당시 친명계 의원 등이 대거 동행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수사 문제와 별개로) 당 대표는 당 본연의 업무인 민생 현안과 민생 입법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윤건영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 지도부가 어찌처럼 함께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지키려는 느낌을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도한 정치 공작을 알려 내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앞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당분간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면서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조는 12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이 지적해 온 ‘윤석열 정권 실정론’을 내세우는 한편, 제1야당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언급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법리스크와 방탄프레임의 장기화가 불가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활로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묶이면서 총선을 겨냥한 혁신과 개혁의 동력 마련보다는 내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과연 이 정도로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형성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임계점에 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호남 출신 두 전직 검사장 ‘이재명 변호인단’ 지휘

박군택·양부남 전 고검장...내년 총선 광주 지역구 출마

호남 출신 두 전직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광주 출신인 박군택 전 광주고검장이 최근 이 대표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유일한 변호인으로 조사실에 입회했고, 향후 이어질 법정 다툼도 진두 진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밖에서는 담양 출신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고 있다. 한 때 검찰 최고 위직이었던 이들은 이제 검찰 후배이자, 이른바 검찰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과 법리

다툼 등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고, 대검-중앙지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0년 법무부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대표 법률 특보를 맡아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양 전 고검장은 광주에서 부장검사, 광주 지검장 등을 지냈고,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기소한 뒤 2020년 검찰을 떠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외압을 했다고 주

장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단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한 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이 두 전직 고검장들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양 전 고검장은 광주 서구를 지역구에 이미 등지를 틀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어서 사실상 이 대표와 ‘한 배’를 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 전 고검장은 지난 7월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성황리에 열고 사실상 바둑 민심잡이에도 나섰다. 박 전 고검장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출마를 준비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서삼석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법’ 발의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 신안) 국회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 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지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법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본회의의 열어 긴급현안질문 표결 절차 밟아야”

박홍근 민주 원내대표, 의장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위기 등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관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묻는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

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만큼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국정 현안은 없으며, 어쩔 줄 모르거나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여당이 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심사를 하고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지는 민주당에 ‘방탄 국회’라는 역지만 부린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

지며 본회의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막바지에 이른 이태원 참사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진상조사를 주문하고 실상은 끔찍하게 죽은 후배 장관만 행거자(경찰) 특수본은 아예 뒷선 수사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마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사주 책임자 3인방에게 ‘윤심 면죄부’를 주는 맹탕 수사를 지속한다면 유족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td> <td>▶</td> <td>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td> <td>▶</td> <td>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서구 화정동 (주택)</td> <td>▶</td> <td>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박호동 (주택)</td> <td>▶</td> <td>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td> <td>▶</td> <td>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td> <td>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td> <td>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r> <td>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td> <td>▶</td> <td>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td> </tr> </table> <p>010-6670-9800</p> <p>010-2614-9801</p>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